대행 스님

이 세상 천차만별 모든 생활은 내 마음속에 가설돼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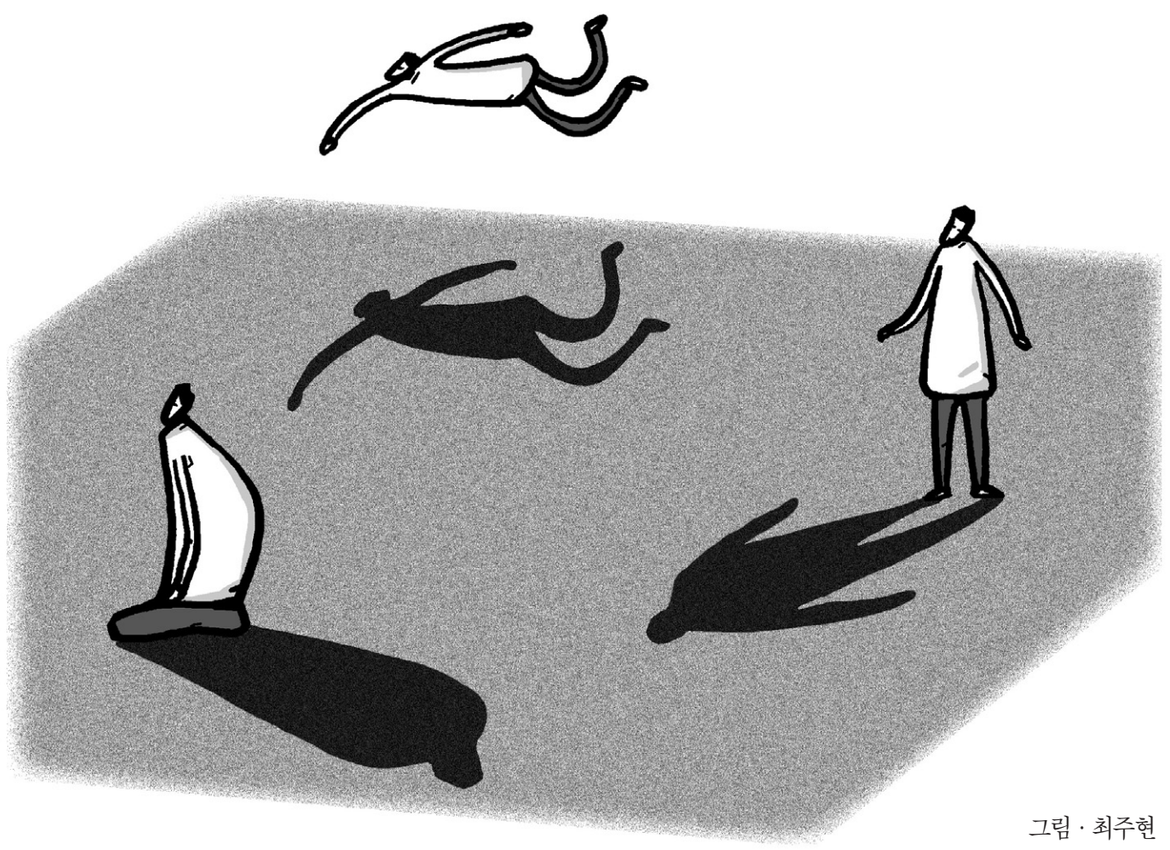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차원의 그릇에 따라서 모두 끼리끼리 모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멀어도 멀다 안 하시고 이렇게 왕림해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것에 재차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참 요상한 놈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요상한 놈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요상한 게 아니라 마음내는 게 요상하겠죠. 우리가 항상 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대로 육근(六根)이라고 하고 육경(六境)이라고 하고 육식(六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의식이 색에 들고, 색은 의식에 포함돼서 항상 밝게, 어떠한 생각이든지 하게 하고 어떠한 거든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의식이 빠진다면 아마 송장이 될 걸요? 그래서 오관이라고 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세계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아는 거, 몸뚱이의 부닥침을 아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붙었으니까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의 문제는 객관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상행식(受想行識), 이 자체가 바로 색의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성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로, 눈은 눈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고 귀는 귀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 맡는 코는 코대로 자기의 소임을 가지고 있고, 맛을 아는 고놈도 바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닥침을 아는 놈은 아는 대로 소임을 가지고 있죠. 몸에 부닥치는 고놈은 바로 경계를 소임으로 맡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보이는 데 색으로만이 소임을 맡은 게 아닙니다. 즉 대기권을 지킨다 이겁니다. 레이더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알게끔 통신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들어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혹성에도 대기(大氣)가 있으니까요.

코의 소임은 냄새 맡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음식 만드는 데의 냄새도 맡아지죠. 구수한 냄새와 먹고 싶지 않은 냄새, 썩은 냄새 이런 것도 잘 맡아 들이는 소임을 가졌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소임을 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 속에서 무의 세계를 맛보는 소임 말입니다. 일거일동, 천차만별의 모든 냄새를 만약에 제대로 맡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점을 냈다 하더라도 망합니다. 품목에 따라서 어떠한 자리에다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냄새를 맡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소임에 다 포함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눈의 소임은 어떤 것이냐? 색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심안으로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가는 천차만별의 이치를 알고 모든 결단을 내리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심안의 그 의식의 작용이 있어야 바로 심안과 육안이 동일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의 소임만 가진 게 아니라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것을, 양면을 다 안고 판단을 내리는 소임을 가졌단 얘기죠. 그리고 듣는 것도 마음의 귀로 들어서 동일하게 동시에 같이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개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다섯 놈이 바로 합동하고 합심해서 하나로 돌아가면서 하나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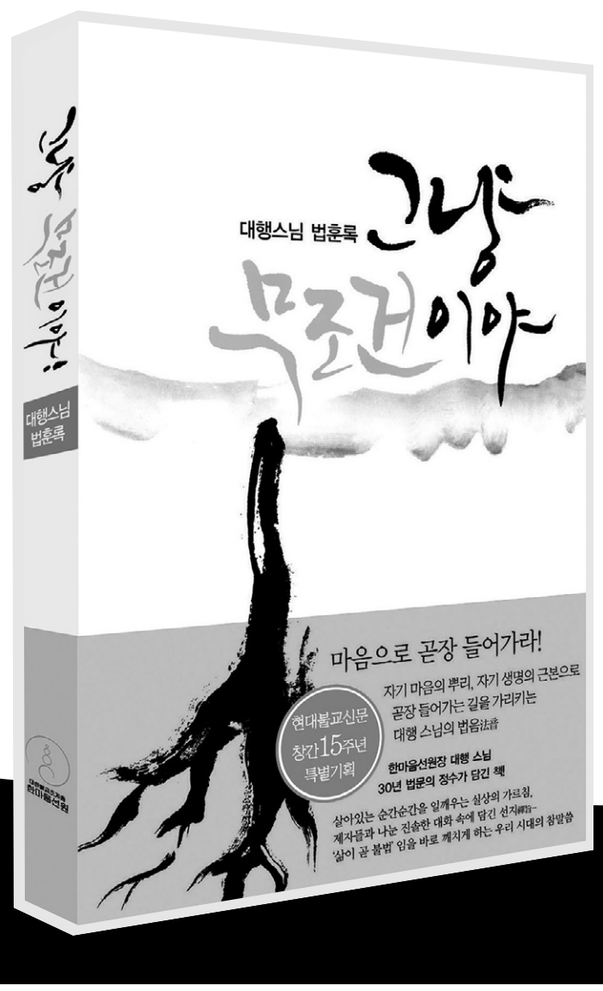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상하다는 게 뭐냐 하면, 아주 나쁘게도 좋게도 생각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육신이, 모든 의식들의 집합소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하나의 안을 세울 수 있어야 비로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좋은 것이지, 이것저것이 제각기 따로따로 생각을 낸다면, 도둑질도 하게 하고 나쁜 일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이것저것 '나'라고 나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그렇게 시키는가 하면 여러분의 몸속에, 항상 얘기해 드리듯이 몸속에 자생중생들이 있습니다. 그 자생중생들이란 어떤 것이냐? 천차만별의 업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업이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애고를 닥치게 하고 병고도 걸리게 하고, 영계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고 세균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고 또는 윤회성에 휘달리게 하기도 하는 이 모든 업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여러분이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죽어서 짐승을 보고도 사람인 줄 알고 좋다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업식에 따른 차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린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써 정자 난자를 빌려서 바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형성을 시켜서 자기의 집합소로 만드는 겁니다. 집합소는 여래의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집합소. 자생중생들의 집합소. 그러나 여래의 집은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모두 천차만별로 돼 있는 만물만생의 집합소죠. 그래서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래의 집이기도 하지마는 바로 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의 심부름꾼도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자처럼 짊어지고, 무겁지 않은 걸 무겁게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속지 마라. 업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네 마음이 한마음으로 너 아닌 게 없다고 믿어라. 네 오장 육부, 네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이 모두 너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너 아님이 없다 하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 여러 가지 고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0%의 물질세계에서는 컴퓨터를 놓고 입력을 해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숙명통이라는 이름의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동적인 컴퓨터.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부처님도 자기 마음과 둘 아니게 놔버려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행하는 거와 말하는 거와 천차만별의 모든 행이 전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차만별의 생활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우주간 법계에 또 입력이 됩니다. 모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남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남이 못 보게 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행을 했든지 좋은 행을 했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가설이 돼서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는 삼천대천세계에 바로 직결이 돼서 통신이 되니 법계에 통신이 되고, 그러니 어찌 천당 지옥이 딴 데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을 잘해서 다스리고 나간다면 천당을 가져올 것이고, 잘못 다스리면 지옥을 가져올 거는 뻔한 이치입니다. 모두들 속이는 것은 자기만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조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쪽에서도 '요놈!' 하고 밉게 생각을 하고, 쌍방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스스로 내 탓으로 돌리고 '이 세상에 내가 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나지 않았다면 상대가 없으리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거든지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내 탓으로 돌려놓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둘로 보지 않고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야 할 텐데,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바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게 되고, 우주간 법계 일체제불의 마음도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슬기로운지 모릅니다. 한생각 잘 내고 못 내는 데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느냐, 또는 창살 없는 감옥에, 웅덩이에 빠져서 세세생생 허덕거리고 빠져나오질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 과거에 지은 죄는 오늘에 받고 오늘에 하는 것은 미래에 받는다고 했지만 어저께도 과거요, 조금 아까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저께 따귀를 때렸더니 오늘 따귀를 때리러 되오더라.' 이런 걸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일체 만법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대처하는 법, 즉 양식을 먹는 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먹는 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부처님도 자기하고 둘이 아니게, 자기 마음과 둘이 아니게 놔야 됩니다. 삼천 년 전에 계신 부처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고깃덩어릴 믿지 말고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모두가, 풀포기 하나라도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살림살이 아닌 게 없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 먹어라.' 하는 말은, 이게 말이자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 먹어라.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집어 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 먹어라. 체하면 막힌다. 막히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재식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 법재식은 부처님이 가르쳐 준 뜻을 내면에 새겨 놓고 내 몸속의 자생중생들을 한 마음으로 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맡겨 놓는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맡겨 놓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선열법이니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근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니, 그것을 내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셋째, 염식이니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찰나에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니, 이 또한 내면 주인공에 감사히 놓는다. 넷째, 원식이니 행선 입선 와선 좌선, 이 모두를 한데 합쳐서 참선으로 돌려서 둘 아닌 행을 하고 체험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것이니 또 내 주인공에 감사하게 놓는다. 그리고 다섯째, 불식이니 일체 만물만생을 보살피며 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걸림 없이 여여하게 구족하니, 이것을 재식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법이자 여러분의 법이며, 그 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이면서 참선이면서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항상 이 말씀을 해 드리는데도 여전히 캄캄하다면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닥치는 대로 집어먹어라.
집어먹되 걸리지 않게 집어먹어라.
체하면 막힌다.
막히면 죽는다.

그래서 다섯 가지 향(香)이 있는데, 첫번만 얘기하죠. '계향' 할 때 마음의 계향이지 그것이 달리, 이름의 계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나한테 닥치는 것이지,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부딪침도 없고 닥칠 일도 없죠.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모두 '내 탓이라!' 하고 돌려놓는 것이 바로 미움을 안 가질 수 있고 증오를 안 할 수가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에도 말로써 몸을 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려 하신다면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다 해서 "요놈의 새끼, 왜 그런 짓만 하고 이러냐?" 하고 자꾸 그러면 자꾸 빗나가서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고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환난이 생깁니다. 그러나 "얘, 춥지 않으냐. 덥지 않으냐. 배고프지 않으냐. 어떻게 잤니?" 아, 이렇게 지혜로써 따뜻한 말을 해 주고 따뜻한 행을 해 주면 금방 바뀌집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 바로 자식과 부모라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럭하고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대해 주면 금방 행이, 말이 모두가 바뀌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나쁘게 돌아가는 것을 좋게, 슬기롭고 고뇌가 없고 병고가 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했지마는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 한 가지만 없어도 살지 못하며 물 한 가지만 없어도 살지 못하며, 불이 없어도 살지 못하며 흙이 없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네 가지가 바탕이 돼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아주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듣지 못했던 분은 그대로 잘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관습에 의해서, 살아나오던 관습에 의해서, 그 관습의 착이 떨어지지 못해서, 습이 떨어지지 못해서, 욕심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 까닭입니다. 그 네 가지의 요소가 바로 에너지의 참원소로 돼 있다는 사실을, 불신해서라기보다는 모두 몰라서 그렇죠. 있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도 모르고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자유롭게 쓰시라는 겁니다. 닦는다는 이치는 바로 다스려라 이겁니다. 놔라 놔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업식을 놓으라는 겁니다. 놓으면서도, 거기다 맡겨 놓고 그대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말을 하는 거나,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가고 오는 거, 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한 세계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잘 다스려서 놓고, 또 어떤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애고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는 데서 체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거기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유한한 것은 육신이지마는 무한한 것은 무심(無心)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복으로 전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물질세계에서는 물질세계대로, 무의 세계는 무의 세계대로 바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달을 하고 돌아가니 세세생생 끊임없이 영원하더라 하는 이치를 아셔야 할 겁니다.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본원에 나가고 있는 신도입니다. 항상 큰스님의 원력에 감복을 받고 아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리신앙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간혹 외국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셔다가 새로 봉안하게 되었다는 절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그렇게 많을 리도 없겠지마는 더욱이 진신사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아픈 제자가 부처님을 청해서 그 집에 가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 마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안다면 이 고깃덩어릴 보고 고깃덩어리가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그걸로써 족하니라." 이러셨거든요. 그랬으니 꼭 그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부처님도 모두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그 물질을 보고 전전해서 되겠습니까? '물질을 보되 부처님의 마음을 보라. 부처님의 마음을 봤으면 마음을 지녀라. 마음을 지녔으면 자비로써 여러 사람들과 둘 아니게 마음을 베풀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니 어찌 물질을 보고 찾겠습니까? 그리고 전전하고 끄달리겠습니까? 천리만리에 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리의 근본을 내가 지니면 그것은 껍데기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지혜로운 생각으로써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 만나 뵙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에 다니고 싶어 왔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결혼하고 싶으면 한다!' 이게 그냥 법이에요. 나는 그래요. 어저께요, "오늘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나?" 이래요. 여기 올 사람들이 비 맞을까 봐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체가 없고 마음먹기에 달렸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못한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관습에 의해서 끄달리지 말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주먹을 쥐어 보이시며) 하는 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들어야 하겠다!' 하면 아마 들 겁니다. 하하하…. 그리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구합니다. 꼭!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7월 1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 KFA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번호 제109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ETI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해시험 EMI 합격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LIG화재 배상보험가입
실용신안등록 특허청
ISO 9001 확득 HQC-2115호 한국생산성본부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